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현대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형을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부에 참여하는 요인과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었지만, 차별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별,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부, 자원봉사, 비영리 조직, 중복적 보완관계, 보충적 대체관계

* 이 논문은 제 4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2011년 9월 23일)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1. 문제제기

제3섹터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최근, 비영리 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기부와 봉사활동은 더 이상 개인적 자선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에서도 주요한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Van Slyke and Brooks, 2005). 게다가 비영리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기금 조성 전략 및 기부문화 확산이 비영리 조직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박장원·박현순, 2007).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정부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개인의 기부와 봉사를 통한 자원 확보는 비영리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부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0년 모금 실적을 보면, 개인기부액이 33.0%이며, 법인 기부액이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 이는 개인기부가 80%에 가까운 미국 등 구미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박장원·박현순, 2007).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에 있어서는 2009년 아름다운재단 조사결과 우리나라 개인의 23.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55.7%가 기부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재단, 2010). 이는 미국인의 50%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 가구의 70% 이상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Jones, 2006), 매우 낮은 수치인 것이다. 기부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개인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비영리 조직들은 만성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김미숙·김은정, 2005). 그러므로 기부와 봉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박장원·박현순, 2007).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타적 목적으로 돈을 내는 기부와 시간을 내는 자원봉사활동은 모두 자선적 활동이라는 공통적 요소가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아니면 보충적 대체관계인지에 대한 연구(Bekkers, 2002)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부와 봉사가 경쟁적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관점과 기부

와 봉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사람은 봉사활동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Van Slyke and Brooks, 2005). 돈과 시간의 기부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봉사를 하는 사람과 기부를 하는 사람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Jones, 2006), 개인의 기부가 감소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Van Slyke and Brooks, 2005).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관계라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Bekkers, 2002).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한 이론이 부족하고(Bekkers, 2002), 기부와 봉사라는 자선적 활동의 영향요인들이 문화적 맥락과 더불어 다양하게 혼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비영리 조직의 자원동원 활동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조직들은 외형적으로 자원동원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의 직원들에게 자원동원활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원동원활동의 전문성이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연희, 2004). 즉, 기부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체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세부적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자원봉사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중복적 관점과 기부와 봉사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관점 중 어떠한 시점이 더 우세한지를 발견한다면, 비영리 조직에서 개인들의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낼 때 접근하는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복적 보완관점이 우세하다면 기부자나 봉사자를 신규로 발굴할 때, 두 가지 참여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자선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원봉사와 기부 중 한 가지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을 모두 표적집단으로 하여 기부와 봉사 둘 다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보충적 대체관점이 우세하다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상이한 집단에 적합한 모집과 홍보를 하는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발굴시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성과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최근 들어 복지서비스 재정부담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부와 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유형화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의 전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유형을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집단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자선활동과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자선활동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돈을 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자선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Bryant, Jeon-Slaughter, Kang, and Tax, 2003; Wilson and Musick, 1997).

인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나 특성으로 정의되며(김현주·김준영, 2010), 문화적 자본은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오랜 특성과 습관으로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공유되고, 세대에 전수되는 공통의 믿음, 가정, 가치 등의 총체로써 규정할 수 있다(김재곤, 2009).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 특히 가족, 학교, 종교 등 공통의 명칭을 적용하는 신뢰할만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자원의 총합이다(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육수준, 소득, 재산, 직업 등은 인적 자본에 해당한다.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는 문화적 자본은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과 함께 기부와 자원봉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부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자본과 자선활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ilson, 2000; 이현기 2010에서 재인용). 이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현기, 2010).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본은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인종, 민족성, 연령, 성별, 자선활동과 관련한 아동기의 경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인종, 민족성, 연령과 성별 등은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도 있는데, 자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적 자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연령은 동일한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성별은 그 문화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성별은 문화적 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Bryant, Jeon-Slaughter, Kang, and Tax, 2003).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집단소속, 가족유대 등으로 교회참석, 여가활동, 결혼상태 등이 자선활동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에 포함된다. 결혼상태는 가족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이현기, 2009), 미혼, 사별,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화가 가능하다(Bryant et al, 2003).

2)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먼저 인적 자본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다. 많은 국외 연구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기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ollinger and Johnson, 1995; 홍은진,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이 기부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강철희, 2003)와 소득이 기부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강철희·주명관, 2008) 등 소득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중하위인 소득층과 중위 소득층에서 기부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은진, 2005). 교육수준도 기부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an Slyke and Brooks, 2005),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기부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yons and Navison-Smith, 2006).

문화적 자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선적인 경향이 있으며 시간과 돈의 기부를 더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an Slyke and Brooks, 2005; Simmons and Emanuele, 2007). 그러나 기부금액과 관련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Andreoni, Brown and Rischall, 2003), 일부 연구들에서는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한다(Frey and Meier, 2004; 강철희·변은지·구지윤, 2011). Bryant와 그의 동료들(2003)은 문화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돈이라는 자원을 더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요청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기부를 한다고 하였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나이 의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75세 이후로는 기부행동이 감소하거나(Andreoni, 2001; 강철희·주명관, 2008에서 재인용), 65세 이후부터는 기부행동이 감소한다는(Landrt, Lange, Price, and Rupp, 2006; 강철희·주명관, 2008에서 재인용) 연구결과들이 있다. 기부행동과 연령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30대와 40대가 가장 활발히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주명관, 2008).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모두 종교가 기부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ackson, Bachmeier, Wood, and Craft, 1995; 강철희·주명관, 2008). Lyons와 Navison-Smith(2006)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가 기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종교의식에 참여하는지가 기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더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결혼상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존 국내의 연구에서 기혼의 경우 미혼, 사별, 이혼, 별거의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oni et al., 2003; Van Slyke and Brooks, 2005). 즉, 미혼이거나 사별, 별거인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에 비해 사회적 자본에 덜 연결되기 때문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덜 한다는 것이다(Bryant et al, 2003). 그러나 Randolph(1995)는 결혼상태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적 자본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가구소득, 학력, 직업 등의 인적 자본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이현기, 2009; Freeman, 1997). 취업유무와 관련해서 임금근로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시간이 자원봉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Taniguchi, 2006). 그러나 Freeman(1997)은 근로시간과 자원봉사시간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Becker와 Hofmeister(2000)도 근로시간이 봉사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지어 반대의 주장도 있다. Freeman(1997)은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Wilson과 Musick(1997)은 가장 “일중독”일 것 같은 전문가와 관리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봉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넓은 사회에 통합되고, 그 때문에 봉사활동의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취업상태는 남자와 여자의 봉사활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간제(part time) 직업을 갖고 있는 결혼한 남성은 봉사활동보다 좋은 직업을 찾아 경제적 책임을 더 하라고 아내에게 압력을 받기 쉽지만,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런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성에게 취업과 자원봉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만, 여성에게는 제로섬 게임일 수 있다(Taniguchi, 2006).

문화적 자본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높았다. 그 원인으로 Bryant와 그의 동료들(2003)은 전통적으로 여성은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원봉사의 성별 차이와 관련한 외국연구에 의하면,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는 반면에, 자원봉사를 하는 남성의 대부분은 전일제(full time)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여가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iguchi, 2006). 또한 연령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았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niguchi, 2006;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강철희(2003)의 연구는 종교 여부가 자원봉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의 연구(Bekkers, 2003)에서는 종교 및 종교성이 자원봉사에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혼상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미혼 또는 독신보다 자원봉사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Sundeen, 1990). 또한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유 시간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가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게 된다(이현기, 2009).

4)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간의 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간의 관계에 대해 중복적 보완관계라는 시각과 보충적 대체관계라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Bekkers, 200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관점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충적 대체관계에서는 인적 자본은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화적 자본은 어떠한 가치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의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중복적 보완관계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자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복적 보완관계

먼저 중복적 관계라는 시각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연구에서 기부와 봉사활동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중복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Freeman, 1997; Reed and Selbee, 2001; Bekkers, 2002; Van Slyke and Brooks, 2005). Putnam(2000)은 미국에서 시간과 돈의 기부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비영리 조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으로부터 기부 요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ekkers, 2002). 봉사활동과 기부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봉사와 기부는 모두 학력, 종교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크기와 관련된다. 이것은 뒤르켐(Durkheim)의 규범 순응 행동의 고전적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종교집단과 더 작은 마을과 같은 더 결합적 공동체에서, 규범 순응 행동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부와 봉사는 모두 결속적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산물의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기부와 봉사는 사회구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인의 복지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친사회적 성격에 대한 심리적 연구에서 강조된다(Penner, Fritzsche, Craiger and Freifeld, 1995). 타인의 복지에 대해 더 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공감과 수용과 같은 친사회적 개인 성향은 실제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Penner et al., 1995; Penner and Finkelstein, 1998; Elshaug and Metzger, 2001).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지만, 강철희와 주명관(2008)은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부 정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와 기부행동의 보완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보충적 대체관계

다음으로 기부와 봉사가 보충적 대체관계라는 주장이 있다. 기부와 봉사가 모두 사회에 이익이 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두 형태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경쟁적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이 있다(Bekkers, 2002). 합리적 선택 이론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때, 관련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좋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과 시간의 기부라는 대안적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즉, 여가시간이 많으면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대신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와 봉사활동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는 것이다(Freeman, 1997). 이러한 상충관계 가설은 더 많은 여가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봉사를 하지만 기부는 더 적게 하고, 반대로 더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기부하지만, 봉사활동은 덜 한다는 것이다(Wilson, 2000). 즉, 효용극대화의 경제모델에서 시간과 돈의 기부간에는 대체적 관계가 있으며, 자원봉사는 기부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외국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화 등 사회적 자본과 더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 접촉은 기부보다는 자원봉사를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참여 중심이고, 면 대 면 상호작용에 의해 더 촉진된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적 연대가 기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는 인적 자본인 소득과 개인적 가치와 같은 내적인 자원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자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기부를 더 하기보다는 자원봉사를 더 한다는 것이다. Andreoni, Gale과 Scholz(1996)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반한 상호적 행동으로 간주했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기 때문에 거주기간도 관련이 있다(Jones, 2006).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지역 내에 더 큰 네트워크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지역사회에 투자한다(Macleod, Daily, Guo, Bayer, and Yang, 1996). 결과로, 더 오랜 거주기간은 기부보다는 더 많은 자원봉사를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주요한 요인이다. 반면에, 기부에 있어서는 면 대 면 접촉과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덜 중요하다. 교육, 수입과 같은 개인적인 자원은 자원봉사보다는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친다(Jones, 2006).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부행동과 자원봉사 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에 의해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중복적 보완관계에서는 세 가지 자본이 기부와 봉사활동 모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보충적 대체관계에서는 인적 자본은 기부에,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화적 자본은 어떠한 가치인가에 따라 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1〉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간의 관계에 관한 관점

	중복적 보완관계 (Multiplicative behavior, Spill-over)	보충적 대체관계 (Compensatory behavior, Trade-off)
관점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기부와 봉사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임	인적 자본은 기부에,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 참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임
가정	-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는 긍정적 상관관계 -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자 간에 중복관계 성립	-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는 경쟁적 행동 -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자 간에 상충관계 성립
원인	- 자원봉사는 더 자주 기부 요청을 받음 - 기부와 봉사 모두 결속적 사회집단 내 통합의 결과(사회적 네트워크 중요) - 타인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갖는 성향의 사람들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모두 함	- 좋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과 시간의 기부라는 두 가지 중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 - 기부와 자원봉사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반한 상호적 행동
결과	- 비영리 조직과 연관을 맺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소득과 학력이 높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감과 수용 등의 친사회적 개인성향을 갖고 있으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모두 함	- 소득이 많으면, 봉사보다는 기부를 더 하고 여가시간이 많으면, 기부보다는 봉사를 함 - 봉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기부는 소득, 개인적 가치와 같은 개인적 자원과 더 연관되어 있음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4,000여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5차 조사는 2010년 5월 17일 ~ 8월 31일까지 4차년도에 패널 표본으로 구축된 6,207가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2009년 1년 내에 9개월 이상을 함께 생활하며 소득과 지출을 공유한 가구원 중 15세 이상(중고생 제외)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에 대비한 5차년도 조사 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6,034가구로 85.32%이며, 가구원은 12,014명으로 83.07%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2,014명이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기부와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밝혀진 변수들을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상태와 수입만족도, 직업만족도이다. 이 중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취업상태는 객관적 지표이며, 수입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객관적 조건은 주관적 만족도의 기본 토대로 작용하며, 객관적 조건의 개선을 통해 만족도의 향상이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에 토대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일관된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상황보다 주위사람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평가가 만족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형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기부와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두 지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구 경상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왜도와 첨도가 높아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취업상태는 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였고, 미취업자를 기준집단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의 수입만족도,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자본은 성별과 연령으로, 성별은 여성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하였고, 연령은 30-40대가 기부행동이 가장 활발하고, 70대 이후에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화 한 후 70대 이상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자선활동과 관련한 아동기의 경험, 부모의 자선활동 참여 등도 문화적 자본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선정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종교, 결혼상태, 사회적 친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이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지와 없는지로 구분하여 종교가 없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사별·이혼·별거, 미혼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혼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사회적 친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자본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두 지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부 참여여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이며, 한국복지패널 원자료에서 기부 중 종교단체 기부는 제외되어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부와 봉사 둘 다 참여 = 1 기부만 참여 = 2 자원봉사만 참여 = 3 기부와 봉사 둘 다 미참여 = 4(기준)	
독립 변수	인적 자본	가구소득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연간 합계액)
		교육수준	무학 = 1 초등학교 졸업이하 = 2 중학교 졸업이하 = 3 고등학교 졸업이하 = 4 전문대 졸업이하 = 5 대학교 졸업이하 = 6 대학원(석사)이하 = 7 대학원(박사)이하 = 8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 1 자영업 및 고용주 = 2 무급가족종사자 = 3 미취업자 = 4(기준)
		수입만족도	1점(매우불만족) ~ 5점(매우만족)
		직업만족도	1점(매우불만족) ~ 5점(매우만족)
	문화적 자본	성별	남자 = 1 여자 = 2(기준)
		연령	20대이하 = 1 30대 = 2 40대 = 3 50대 = 4 60대 = 5 70대 이상 = 6(기준)
	사회적 자본	종교	종교있음 = 1 종교없음 = 2(기준)
		결혼상태	미혼 = 1 사별/이혼/별거 = 2 기혼 = 3(기준)
		사회적 친분만족도	1점(매우불만족) ~ 5점(매우만족)
		여가생활만족도	1점(매우불만족) ~ 5점(매우만족)

3) 분석방법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둘 다 하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PAS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2,014명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보면,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하는 경우는 257명(2.1%), 기부만 하는 경우는 430명(3.6%), 자원봉사만 하는 경우는 334명(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10,993명(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 현황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기부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기부만 하는 경우의 가구소득이 6,814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둘 다 하는 경우로 6,474만원이었으며, 봉사만 하는 경우는 5,275만원,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3,661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에 따라 기부와 봉사의 참여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168.895, P=.000$). 특히, 둘 다 하는 경우와 기부만 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봉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는 참여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실제 값은 왜도(5.540)와 첨도(73.447)가 높아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로그변환 하였으며, 변환 결과 평균은 7.95($SD=.83$)이고, 왜도(-.348)와 첨도(.104)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둘 다 참여하는 경우와 기부만 참여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봉사만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높아지는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상승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은 기부에 비해 봉사활동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F=198.563, P=.000$). 취업상태는 둘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금근로자는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5.9%), 자영업 및 고용주는 기부와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며(3.4%),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미취업자도 자원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5%). 가족의 수입만족도는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3.17), 그 다음이 기부만 참여하는 경우(3.08),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경우(2.97)였으며, 둘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점수가 낮았다(2.63). 직업만족도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3.66), 그 다음이 기부만 참여하는 경우(3.64),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경우(3.52)였으며, 둘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점수가 낮았다(3.16).

다음으로 문화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427명(45.2%)이고 여성이 6,587명(54.8%)이었으며, 성별이 기부와 봉사 참여 여부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기부와 봉사 둘 다 하거나 기부만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봉사만 한다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

게 나타났다($\chi^2=24.855, P=.000$).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선적인 경향이 있어서 돈을 더 기부한다는 주장(Simmons and Emanuele, 2007; Van Slyke and Brooks, 2005)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문화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돈이라는 자원을 더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요청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기부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ryant et al, 2003). 또한 이 결과는 여성은 문화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남성보다 더 참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연령은 기부와 봉사를 둘 다 하는 경우 47.15세이고, 기부만 하는 경우는 45.44세, 봉사만 하는 경우는 49.98세, 둘 다 안하는 경우는 53.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F=41.956, P=.000$). 즉, 둘 다 안하는 경우에 비해 기부나 봉사를 하는 경우 연령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부만 하는 경우의 연령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둘 다 하는 경우와 기부만 하는 경우는 30대와 40대가 많고, 봉사만 하는 경우는 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Taniguchi, 2006;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와는 다른 결과로, 60대나 70대 이후에 기부행동이 감소하며,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30대와 40대가 가장 활발히 기부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강철희·주명관,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n=12,014)

구분		둘다한다 (n,%)	기부만한다 (n,%)	봉사만한다 (n,%)	둘다안한다 (n,%)	전체 (n,%)	F값/ χ^2	
합계		257(2.1)	430(3.6)	334(2.8)	10,993(91.5)	12,014(100.0)		
인적 자본	가 구 소 득	1,000만원 이하	4(0.3)	13(0.8)	17(1.1)	1,526(97.8)	1,560(100.0)	168.895***
		1,000-2,000만원	19(0.8)	16(0.7)	38(1.7)	2,217(96.8)	2,290(100.0)	
		2,000-3,000만원	28(1.5)	35(1.9)	32(1.8)	1,731(94.8)	1,826(100.0)	
		3,000-4,000만원	30(1.7)	46(2.6)	48(2.7)	1,658(93.0)	1,782(100.0)	
		4,000-5,000만원	35(2.5)	54(3.8)	53(3.8)	1,265(89.9)	1,407(100.0)	
		5,000-6,000만원	29(3.0)	64(6.5)	39(4.0)	846(86.5)	978(100.0)	
		6,000-7,000만원	29(4.2)	47(6.8)	27(3.9)	591(85.2)	694(100.0)	
		7,000만원 이상	82(5.6)	155(10.6)	80(5.5)	1,150(78.4)	1,467(100.0)	
	평균(만원, SD)	6474(5182.31)	6814(5551.79)	5275(5262.65)	3661(3401.26)	3879(3684.50)		
교육 수준	교 육 수 준	무학	4(0.3)	2(0.2)	2(0.2)	1,221(99.3)	1,229(100.0)	198.563***
		초등 졸업이하	10(0.4)	12(0.5)	33(1.4)	2,366(97.7)	2,421(100.0)	
		중학교 졸업이하	20(1.5)	19(1.4)	47(3.4)	1,282(93.7)	1,368(100.0)	
		고등 졸업이하	71(2.1)	125(3.6)	135(3.9)	3,126(90.4)	3,457(100.0)	
		전문대 졸업이하	30(2.6)	54(4.7)	23(2.0)	1,041(90.7)	1,148(100.0)	
		4년제 대졸이하	97(4.4)	176(8.3)	83(3.9)	1,776(83.4)	2,129(100.0)	
		대학원 석사이하	25(10.6)	37(15.7)	11(4.7)	162(68.9)	235(100.0)	
		대학원 박사이하	3(11.1)	5(18.5)	0(0.0)	19(70.4)	27(100.0)	

구분		둘다한다 (n,%)	기부만한다 (n,%)	봉사만한다 (n,%)	둘다안한다 (n,%)	전체 (n,%)	F값/ χ^2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142(3.1)	267(5.9)	127(2.8)	3,992(88.2)	4,528(100.0)	182.836***	
	자영업 및 고용주	47(2.5)	63(3.4)	62(3.4)	1,678(90.7)	1,850(100.0)		
	무급가족종사자	6(0.9)	6(0.9)	23(3.5)	631(94.7)	666(100.0)		
	미취업	62(1.2)	94(1.9)	122(2.5)	4,692(94.4)	4,970(100.0)		
	수입만족도 : 평균(SD)	3.17(0.96)	3.08(1.01)	2.97(0.98)	2.63(0.94)	2.67(0.95)	68.463***	
직업만족도 : 평균(SD)	3.66(0.87)	3.64(0.83)	3.52(0.92)	3.16(0.92)	3.20(0.93)	73.928***		
문화적 자본	성별	남성	133(2.5)	230(4.2)	125(2.3)	4,939(91.0)	5,427(100.0)	24.855***
		여성	124(1.9)	200(3.0)	209(3.2)	6,054(91.9)	6,587(100.0)	
	연령	20대이하	15(1.2)	26(2.1)	29(2.3)	1,197(94.5)	1,267(100.0)	41.956***
		30대	70(3.5)	124(6.1)	50(2.5)	1,782(88.0)	2,026(100.0)	
		40대	68(3.1)	143(6.5)	79(3.6)	1,911(86.8)	2,201(100.0)	
		50대	51(2.8)	90(4.9)	101(5.5)	1,599(86.9)	1,841(100.0)	
		60대	38(2.1)	26(1.5)	50(2.8)	1,668(93.6)	1,782(100.0)	
70대이상	15(0.5)	21(0.7)	25(0.9)	2,836(97.9)	2,897(100.0)			
평균(SD)	47.15(13.26)	45.44(12.08)	49.98(13.77)	53.64(18.40)	53.11(18.09)			
사회적 자본	종교	있음	164(2.5)	282(4.3)	215(3.3)	5,901(89.9)	6,562(100.0)	46.342***
		없음	93(1.7)	148(2.7)	119(2.2)	5,092(93.4)	5,452(100.0)	
	결혼 상태	미혼	40(2.0)	51(2.6)	39(2.0)	1,860(93.5)	1,990(100.0)	120.788***
		이혼/사별/별거	26(1.1)	26(1.1)	33(1.4)	2,213(96.3)	2,298(100.0)	
		기혼	191(2.5)	353(4.6)	261(3.4)	6,899(89.6)	7,704(100.0)	
	사회적 친분만족도 : 평균(SD)	4.00(0.58)	3.98(0.59)	4.02(0.54)	3.77(0.68)	3.79(0.67)	36.105***	
여가생활만족도 : 평균(SD)	3.42(0.91)	3.33(0.90)	3.40(0.95)	2.97(0.94)	3.00(0.94)	59.877***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종교는 둘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참여유형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기부와 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46.342$, $P=.000$), 특히, 기부만 하는 경우 종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3%). 결혼상태는 둘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유형에서 기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부만 하는 경우가 기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4.6%), 이혼/사별/별거의 경우는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20.788$, $P=.000$). 이는 기부나 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네트워크,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Bryant et al., 2003), 결혼상태와 관련하여 이혼, 사별, 별거인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에 비해 사회적 자본에 덜 연결되기 때문에 기부나 자원봉사도 덜 한다는 주장(Bryant et al., 200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친분만족도는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4.02), 그 다음이 둘 다 참여하는 경우(4.00), 기부만 참

여하는 경우(3.98), 둘 다 참여하지 않는(3.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는 소득과 같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과 더 관련되며,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화와 더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Jones, 2006)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가생활만족도는 둘 다 참여하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3.42), 그 다음이 봉사만 하는 집단(3.40), 기부만 하는 집단(3.33), 둘 다 하지 않는 집단(2.97) 순으로 나타났다.

2)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미치는 요인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둘 다 참여하는 집단과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과 둘 다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적 자본 중에서는 가구소득($B=.489, P=.000$), 교육수준($B=.498, P=.000$), 취업상태 중 임금근로자($B=.374, P=.036$)와 자영업 및 고용주($B=.573, P=.009$), 가족수입만족도($B=.175, P=.029$), 직업만족도($B=.188, P=.036$)가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문화적 자본 중에서는 연령 중 20대 이하($B=-1.159, P=.013$), 50대($B=.664, P=.043$), 60대($B=.847, P=.008$)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에서는 종교($B=.419, P=.002$), 여가생활만족도($B=.264, P=.001$)가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참여할 승수(odds)는 1.631배로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기부와 봉사 모두에 참여할 확률도 높아진다. 교육수준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참여할 승수가 1.645배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기부와 봉사 둘 다 참여할 확률도 증가한다.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기부와 봉사 둘 다 참여할 승수는 1.454배이고, 자영업 및 고용주가 기부와 봉사 둘 다 참여할 승수는 1.773배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및 고용주는 기부와 봉사에 둘 다 참여할 확률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수입만족도가 기부와 봉사 모두에 참여할 승수는 1.191배이고, 직업만족도는 1.207배이다.

연령이 20대 이하일 경우 70대 이상에 비해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할 승수는 0.314배이다. 이는 20대 이하일 경우 70대 이상에 비해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이다. 반면, 50대는 70대 이상에 비해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할 승수는 1.943배이고, 60대는 2.33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비해 20대 이하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덜 하고, 30대와 40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50대와 60대는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을 때,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참여할 승수는 1.520배로 종교가 없을 때보다 종교가 있을 때 기부와 봉사 모두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만족도는 1.302배인

것으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기부와 봉사 모두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친분만족도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부와 봉사 둘 다 하지 않는 집단과의 비교)

변수		기부와 봉사 둘 다 하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인적 자본	가구소득	.489***	17.173	1.631	.590***	34.891	1.804	.123	1.450	1.131	
	교육수준	.498***	78.417	1.645	.510***	120.004	1.665	.275***	29.333	1.316	
	취업 상태 (기준: 미취업)	임금근로자	.374*	4.411	1.454	.416**	8.541	1.515	-.195	1.784	.823
		자영업 및 고용주	.573**	6.901	1.773	.314	2.840	1.369	.213	1.409	1.238
		무급 가족종사자	-.160	.132	.852	-.660	2.324	.517	.037	.022	1.038
	가족수입만족도	.175*	4.790	1.191	.040	.404	1.041	.105	2.311	1.111	
	직업만족도	.188*	4.382	1.207	.185**	6.925	1.203	.119	2.493	1.126	
문화적 자본	성별 (기준: 여성)	남성	-.216	2.197	.806	-.138	1.408	.871	-.556***	16.884	.574
		연령 (기준: 70대 이상)	20대이하	-1.159*	6.168	.314	-.422	1.291	.656	.245	.374
		30대	.239	.500	1.271	.368	1.763	1.445	.398	1.803	1.489
		40대	.322	.960	1.380	.496	3.363	1.643	.846**	9.533	2.331
		50대	.664*	4.115	1.943	.711**	6.802	2.036	1.513***	35.655	4.541
		60대	.847**	7.074	2.332	-.004	.000	.996	.882**	11.969	2.417
사회적 자본	종교 (기준: 없음)	있음	.419**	9.252	1.520	.550***	24.939	1.734	.327**	7.285	1.387
	결혼 상태 (기준: 기혼)	미혼	.068	.087	1.070	-.634**	9.584	.531	-.459	2.986	.632
		사별이혼 별거	.361	2.332	1.435	-.108	.225	.898	-.334	2.559	.716
	사회적 친분만족도	.121	.974	1.129	.069	.515	1.072	.327**	9.106	1.386	
	여가생활만족도	.264**	11.049	1.302	.189**	9.459	1.208	.354***	24.877	1.425	
Model Chi Square(df)		1254.016(54)***									
Cox & Snell R ²		.103									
N		12,014									

*p<.05, **p<.01, ***p<.001

둘째,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과 기부에만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적 자본 중에서는 가구소득(B=.590, P=.000), 교육수준(B=.510, P=.000), 취업상태 중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B=.416, P=.003), 직업만족도(B=.185, P=.008)가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본 중에서는 연령 중 70대 이상에 비해 50대($B=.711, P=.009$)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본 중에서는 종교($B=.550, P=.000$), 결혼상태 중 기혼에 비해 미혼($B=-.634, P=.002$), 여가생활만족도($B=.189, P=.002$)가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가 1.804배이고,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는 1.665배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기부에만 참여할 확률이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는 1.515배로 임금근로자는 기부와 봉사에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기부에만 참여할 확률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가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는 1.203배로 직업에 만족할수록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일 경우 70대 이상에 비해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는 2.036배이다. 이는 50대일 경우 70대 이상에 비해 기부에만 참여할 확률이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교가 있을 때,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는 1.734배로 종교가 없을 때보다 종교가 있을 때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은 기혼에 비해 기부에만 참여할 승수가 0.531배로 미혼은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만족도는 1.208배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기부와 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기부에만 참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과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적 자본 중에서 교육수준($B=.275, P=.000$), 문화적 자본 중에서 성별($B=-.556, P=.000$), 연령 중 70대 이상에 비해 40대($B=.846, P=.002$), 50대($B=1.513, P=.000$), 60대($B=.882, P=.001$), 사회적 자본 중에서 종교($B=.327, P=.007$), 사회적 친분만족도($B=.327, P=.003$), 여가생활만족도($B=.354, P=.000$)가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자원봉사에 참여할 승수는 둘 다 참여하지 않을 승수의 1.316배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확률도 증가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승수는 0.574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확률이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70대 이상에 비해 40대일 경우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승수는 2.331배이고, 50대일 경우에는 4.541배이며, 60대는 2.4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비해 40대, 50대, 60대가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을 때,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승수는 1.387배이고,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승수는 1.386배이며, 여가생활만족도는 1.425배로 나타나 종교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 친분과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원봉사에만 참여할 확률이 둘 다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 집단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기부와 봉사

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집단을 기부와 봉사 둘 다 하지 않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으로 달리하면서 분석하고, 각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와 그 방향성 등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준집단별 독립변수의 영향 비교분석 결과

비교집단		기부와 봉사 둘 다 하지 않는 집단(기준)			기부만 하는 집단(기준)		봉사만 하는 집단(기준)	
		둘 다 하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둘 다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둘 다 하는 집단	
인적 자본	가구소득	***(+)	***(+)			**(-)	*(+)	
	교육수준	***(+)	***(+)	***(+)		***(-)	**(+)	
	취업상태 (기준:미취업)	임금근로자	*(+)	**(+)			**(-)	*(+)
		자영업 및 고용주	**(+)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수입만족도	*(+)						
	직업만족도	*(+)	**(+)					
문화적 자본	성별 (기준:여성)	남성			***(-)		*(-)	
	연령 (기준:70대 이상)	20대이하	*(-)				*(-)	
		30대						
		40대			**(+)			
		50대	*(+)	**(+)	***(+)		*(+)	*(-)
60대	**(+)		**(+)		*(+)			
사회적 자본	종교 (기준:없음)	있음	**(+)	***(+)	**(+)			
	결혼상태 (기준:기혼)	미혼		**(-)		*(+)		
		사별이혼 별거						*(+)
	사회적 친분만족도				**(+)			
여가생활만족도		**(+)	**(+)	***(+)				

*p<.05, **p<.01, ***p<.001

먼저, 인적 자본 변수 중 가구소득은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둘 다하는 집단과 기부만 하는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봉사만 하는 집단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소득은 기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만 하는 집단과 비

교했을 때에도, 봉사만 하는 집단은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만 하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둘 다 하는 집단이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많으면 봉사보다는 기부를 더 한다는 보충적 대체관계 관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둘 다 하는 집단과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기부와 봉사라는 자선적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부만 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봉사만 하는 집단이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은 특히 봉사보다는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수준 또한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한다.

취업상태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둘 다 하는 집단과 기부만 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부만 하는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봉사만 하는 집단은 미취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차이가 없었다. 자영업 및 고용주는 둘 다 하는 집단에서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만 하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봉사만 하는 집단이 임금근로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만 하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둘 다 하는 집단에서 임금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여가시간이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를 구분한다는 보충적 대체관계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기부에 더 참여하지만, 여가시간이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봉사에는 덜 참여하게 된다. 그에 비해, 자영업 및 고용주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둘 다 하는 집단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여가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직업적 특성이 기부와 봉사에도 모두 참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수입만족도는 둘 다 참여하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만족도는 둘 다 참여하는 집단과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 자본 변수 중 객관적 지표인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는 모두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관적 지표인 수입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적 자본 변수가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데 있어서는 객관적 지표가 더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자본 변수 중 성별은 봉사만 하는 집단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하거나 기부만 하는 집단은 성별의 영향력이 없었으나, 봉사만 하는 집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만 하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봉사만 하는 집단에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기부와 봉사활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보충적 대체관계 관점에서 봉사가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에 더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더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내 다양한 모임이나 조직에서 활동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함을 더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은 20대 이하는 70대 이상에 비해 기부와 봉사 둘 다 하지 않는 확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50

대는 70대 이상에 비해 둘 다 하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모두에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기부와 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40대부터, 기부는 50대부터 증가하다가 70대가 되면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으로써 소득, 건강 등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봉사는 70대에 비해 40대, 50대, 60대에서 모두 더 많이 한 것과는 달리 기부는 70대에 비해 50대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50대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기부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지만, 60대 이후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만 하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봉사만 하는 집단은 70대에 비해 50대와 6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종교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둘 다 하는 집단,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모두에서 종교가 있을 때 기부와 봉사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가 기부와 봉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상태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기부만 하는 집단에서 미혼이 기혼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만 하는 집단에 비해서는 둘 다 하는 집단에서 미혼이 기혼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에서 결혼상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상태가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미혼인 경우 사회적 연대의 차이보다는 경제적 안정의 차이로 인해 기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친분만족도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봉사만 하는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만족도는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봉사만 하는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봉사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연구 결과는 보충적 대체관계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부는 소득 등의 인적 자원과 더 연관되어 있고, 봉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5. 결론

기부와 자원봉사는 시민참여활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로 비영리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 동안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여 자원동원 관련 전문적 활동이 비영리 조직의 실질적인 자원획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연희, 2004).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최근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복적 보완관계와 보충적 대체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2,014명 중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하는 경우는 257명(2.1%), 기부만

하는 경우는 430명(3.6%), 자원봉사만 하는 경우는 334명(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10,993명(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나 자원봉사 둘 중 하나라도 하는 경우는 8.5%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둘 다 하는 경우 보다는 기부만 하는 경우와 자원봉사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기부와 봉사를 동시에 할 확률보다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적 자본 변수 중 객관적 지표인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는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충적 대체관계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인적 자본 중 주관적 지표인 가족수입만족도는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에서의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만족도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는 기부만 하는 집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봉사만 하는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족도라는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가 보다 보충적 대체관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본 변수인 성별은 봉사만 하는 집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으로 여성이 돌봄과 관련된 활동에 더 참여하기 때문에 봉사에 더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령은 50대와 60대에서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70대에 비해 50대와 60대는 기부보다는 봉사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의 여가시간이 봉사에 더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는 시기로 기부 참여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변수도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변수인 종교,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는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는 둘 다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둘 다 하는 집단과 기부만 하는 집단, 봉사만 하는 집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의 여부는 기부나 봉사 등 자선적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와 봉사 참여를 구분하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자주 종교의식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지(Lyons and Navison-Smith, 2006)를 검증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상태도 기부만 하는 집단과 봉사만 하는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기부만 하는 집단은 미혼보다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보다 경제적 안정이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친분만족도는 사회적 자본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며, 봉사만 하는 집단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여가생활만족도는 기부와 봉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두 활동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기부와 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소득과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부와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차별적인

요인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사회복지 자원동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다양해지는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부와 봉사참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유형화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집중 홍보하는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모집비용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부자 모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룬 50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국가의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와 기부금의 사용처, 사용내역 등에 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과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보다 봉사활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 내 여성들을 활용한 봉사활동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고, 봉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봉사조직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봉사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50대와 60대를 중점 표적집단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은퇴 후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조직 등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 다 자선적 참여활동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따라 참여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집을 위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부 참여를 더 독려하고, 여성, 50대와 60대에게는 자원봉사 참여를 더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으로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부독려를 위한 대상자 선정 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를 모집하는 것도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더 기부행동에 참여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도 효율적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자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 대상으로 기부자를 모집할 시에는 기부 참여율이 높은 50대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더 많이 기부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성, 40대~60대, 교육수준 및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영리 조직에서는 지역내 여성들의 다양한 모임들을 조직하고, 추후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내는 전략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참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영업 및 고용주들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비영리 조직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선정하고, 지역내 자영업자들의 연합회와 연계하거나 비영리 조직 내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조직의 행사에 초대하는 등 적극적 연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본 중 본인 부모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 아동기의 자선활동 참여 경험 등과 사회적 자본인 지역사회 거주기간,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등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킨다면 더 세부적으로 관련 변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좀 더 자세한 기부모금이나 봉사모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부와 봉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를 먼저 시작했는지, 봉사를 먼저 시작했는지, 기부에서 봉사로 혹은 봉사에서 기부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부와 봉사참여 여부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기부금액이나 봉사활동 시간 등 자선활동 참여 충성도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기부규모와 자원봉사 시간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참여자들의 기부 및 봉사 충성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참여기간 등 지속성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지속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지속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자 간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 새로운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자원동원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조직 등 비영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부자와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강철희·변은지·구지윤. 2011.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8(1): 247-276.
- 강철희·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김미숙·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5-40.
- 김재근. 2009. "문화적 자본과 서비스 품질 지각, 만족도의 차이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5(4): 144-158.
-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 김현주·김준영. 2010.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

- 복지연구』 12(2): 23-52.
- 노연희. 2004. “비영리 사회서비스조직의 재정자원동원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3: 113-137.
- 박장원·박현순. 2007. “기부관여도, 메시지 소구방식, 자아효능감의 기부 의사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11(1): 107-14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 아름다운재단. 2010. 제 10회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자료집.
- 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 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 한형수. 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 Andreoni, J., E. Brown, and I. Rischall.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111-133.
- Andreoni, J., W. Gale, and J. Scholz. 1996.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Working Paper).”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Becker, P. E., and H. Hofmeister. 2000. “Work hours and community involvement of dual-earner couples: Building social capital or competing for time?(Bronfenbrenner Life Course Center Working Paper #00-04).” Ithaca, NY: Cornell Careers Institute.
-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4): 596-615.
- _____. 2002. “Giving time and/or money: trade-off or spill-over?” 31st Annual ARNOVA Conference, Montreal, Canada. <http://www.fss.uu.nl/soc/homes/bekkers/arnova0202.pdf>
- Bryant, W. K., H. Jeon-Slaughter, H. Kang, and A. Tax. 2003.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 Elshaug, C., and J. Metzger. 2001. “Personality attributes of volunteers and paid workers engaged in similar occupational task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6): 752-763.
- Freeman, R.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40-167.
- Frey B., and S. Meier. 2004. “Pro-social behavior in a national sett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 65-88.
- Jackson, E. F., M. D. Bachmeier, J. R. Wood, and E. A. Craft. 1995.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Do religious and associational ties promote helping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 59-78.
- Jones, K. S. 2006. “Giving and volunteering as distinct forms of civic engagement: The role of community integration and personal resources in formal help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2): 249-266.
- Lyons, M., and L. Navison-Smith. 2006. “Religion and giving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 Social Issues* 41(4): 419-436.
- Mecleod, J., K. Daily, Z. Guo, W. P. Eveland, J. Bayer, and S. Yang. 1996. "Community integration, local media use, and democratic processes." *Communication Research* 23(2): 179-209.
- Penner, L. A. and M. A. Finkelstein. 1998. "Disposition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volunteer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25-537.
- Penner, L. A., B. A. Fritzsche, J. P. Craiger, and T. S. Freifeld. 1995. "Measuring the prosocial personality."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10(7): 147-16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ndolph, W. C. 1995. "Dynamic income, progressive taxes, and the tim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4): 709-738.
- Reed, P. B., and L. K. Selbee. 2001. "The civic core in Canada: Disproportionality in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civic particip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 761-780.
- Simmons, W. O., and R. Emanuele. 2007. "Male-female giving differentials: are women more altruistic?"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4(6): 534-550.
- Sundeen, R. 1990. "Family life course status and volunteer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single parent." *Sociological Perspective* 33: 483-500.
- Taniguchi, H. 2006. "Men's and women's volunteer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1): 83-101.
- Van Slyke, D. M., and A. C. Brooks.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Wilson, J., and M. A. Musick. 1997. "Work and volunteering: The long arm of the job." *Social Forces* 76: 251-272.

Are Giving and Volunteering Multiplicative Behaviors or Compensatory Behaviors?

Kim, Ji-Hae

(Namseoul University)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a growth in the non-profit sector and a decrease in the government budget on social welfare result in a greater need of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non-profit organization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through identifying various factors affecting giving and volunteering.

In order to identify what factors are affecting particip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and volunteering is multiplicative or compensatory, this study us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categorizing four groups based on the participation types of giving and volunteering.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at common factors such as religion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were still significant, and specific factors were also found among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Especially, this study identified that factors affecting giving and volunteering differ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gender and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indings confirmed that giving and volunteering are compensatory behavior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 differential strategy for giving and volunteering is needed to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Key words: giving, volunteering, non-profit organization, multiplicative behavior, compensatory behavior

[논문 접수일 : 11. 9. 27, 심사일 : 11. 12. 27, 게재 확정일 : 12. 03. 02]